

## 리얼리즘의 유토피아

: 가와미츠 신이치의 「류큐공화사회 헌법C사(시)안」 읽기

쑨거 (중국 사회과학원)

### 국문요약

오키나와 시인 가와미츠 신이치(川滿信一)의 「류큐공화사회헌법C사(시)안(琉球共和社會憲法C私(試)案)」(1981)은 유토피아적 상상이 가득한 동시에 현실 의식과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가와미츠 「헌법」은 1879년 “류큐 처분”, 1952년 미국 군정부의 신탁통치, 그리고 1972년 오키나와 시정권의 일본 반환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자라난 오키나와 사회의 민족 자결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통용되는 분리주의적 민족독립 이데올로기와 다른 의미의 자치를 모색하며 우리에게 대안적인 사상 자원을 제공한다. 그것은 국가를 부정하고 어떠한 형식의 폭력에도 반대하는데, 각종 명분하의 폭력적 지배와 자발적 예측의 대립물로서 “류큐공화사회”를 제시한다.

오키나와 사상가 오카모토 케이토쿠(岡本惠徳)의 『수평축(水平軸)의 사상—오키나와의 공동체의식에 대하여』(1971)는 가와미츠 「헌법」과 가장 잘 호응하는 텍스트이다. 오카모토는 기존의 국가론과 반국가론을 모두 전복하고, 또한 민중에 대한 지식 엘리트의 담론을 거절하며, “공동체 생리”라는 개념을 통해 민중의 생활 논리 그 자체에 다가간다. 오카모토와 연결해서 읽을 때 가와미츠 「헌법」은 바로 오카모토가 고심했던, 오키나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가와미츠와 오카모토는 모두 오키나와를 피해자의 위치에 안주시키지 않고, 자립에 관한 대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오키나와의 사상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오키나와, 가와미츠 신이치(川滿信一), 오카모토 케이토쿠(岡本惠徳), 오키나와 자립, 류큐공화사회, 공동체의 생리

1981년, 오키나와 시인 가와미즈 신이치(川滿信一)는 잡지 『신오키나와문학(新沖繩文學)』에 「류큐공화사회헌법C사(시)안(琉球共和社會憲法C私(試)案)」(이하 가와미즈 「헌법」)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의 탄생은 동아시아 사상사에 기록될 하나의 '사건'으로, 그 의의는 작품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대 역사의 중요한 구조적 특징들을 응집함으로써, 동아시아 당대 역사로 들어가는 길을 효과적으로 안내한다. 오키나와의 특수한 현실 상황과 역사적 궤적은 유토피아적 상상으로 가득한 이 텍스트에 투철한 현실 의식과 풍부한 역사적 내용을 부여하였다.

## I. 가와미즈 「헌법」의 배경

1972년 오키나와 시정권(施政權)<sup>1)</sup>의 일본 '반환'이 기정사실화된 후, 오키나와 사회는 다시 한 번 거센 풍랑에 휩싸였다. 1879년 '류큐 처분(琉球處分)'에 이어 195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서부터 분리되어 미국 군정부<sup>2)</sup>의 신탁통치를 받은 이래, 1971년 일본 중의원(衆議院) '오키나와 반환협정특별위원회'가 반환협정의 가결을 강행한 것은 진보세력이 세 번째로 배신당하는 것을 의미했다. 1952년과 달리 1972년은 당시 미국 군정부 신탁통치 하의 부자유한 상태에서 '류큐 정부'가 설립되었고, 이는 류큐 사회에 격렬한 반발과 함께 일본복귀운동을 불러일으켰다. 1972

1) (옮긴이 주) 시정권(施政權): 신탁 통치 지역에 대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행사하는 권한.

2) (옮긴이 주) 미국 군대는 1945년 3월 26일 오키나와에 상륙한 후 4월 5일 류큐 열도 미국 군정부를 설립하였다. 1950년 12월 15일, 류큐 열도 미국 민정부(USCAR)로 개칭하였으며, 1952년 4월 1일 군도(群島) 정부를 폐지하고 류큐 정부를 창설하였다.

년 오키나와 반환협정 체결 당시, 류큐 사회에는 복귀를 둘러싸고 상이한 방향들이 나타났다. NHK의 「오키나와현민조사」에 따르면, 1973~1977년 간 오키나와 민중의 복귀 찬성률은 최저점을 기록해,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을 상회했다. 이러한 상황은 1982년이 되어서야 완화되기 시작했다.<sup>3)</sup> 아라사키 모리테루(新崎盛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 사회에 야기한 각종 침해 문제가 복귀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기존의 통화였던 미국 달러가 일본 엔으로 교환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의 평가 절하가 민중 생활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일본 복귀 후의 유일한 변화는 사회 제도가 일본과 일체화(一體化)되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오키나와 민중의 사회생활은 일본의 정치질서 속으로 편입되었다. 이것은 1960년대 말 미국이 오키나와 지배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후 오키나와 민중이 항쟁을 통해 획득한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회 환경과 매우 대조적이었다.<sup>4)</sup>

바로 이처럼 오키나와 민중이 일본에 대해 강렬한 실망감을 느끼는 가운데 오키나와의 민족 자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찍이 류큐가 폐번치현(廢藩置縣)<sup>5)</sup>을 통해 사츠마번(薩摩藩)의 통제에서 벗어나 ‘오키나와 현’이 되어 자주권을 가졌던 때, 이미 오키나와 민족 자결 의지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제까지 발육할 공간을 충분히 얻지 못해 자라나기 어려웠다. 근대 사회가 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통치 질서를 확립해 정치적·경제적 독립과 자주를 모색하는 가운데 국가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를 구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

3) 이상의 수치는 新崎盛暉, 『沖繩現代史』(東京: 岩波書店, 2005), 부록에서 재인용.

4) 新崎盛暉, 위의 책, pp.55~56.

5) (울긴이 주) 폐번치현(廢藩置縣): 메이지 유신 시기인 1871년 영주가 다스렸던 지방 조직인 번(藩)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이다.

또한 일본과 미국 간 변화무쌍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류큐가 하나의 독립된 정치체로서 독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특히 1945년 미군이 오키나와에 강제로 상륙한 후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에서 나날이 커지는 종양이 되었다. 미군은 오키나와의 어업 발전을 통제하고 심지어 붕괴시켰으며, 자주적인 무역 경제 역시 억압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합작 아래 오키나와 본래의 경제 구조는 빠르게 쇠퇴하였고, 기형적인 기지경제(基地經濟)가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본래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류큐 군도는 어쩔 수 없이 미군 기지의 건설과 소비, 그리고 일본 정부의 기지 보조금을 주요한 경제적 버팀대로 삼아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1972년 일본 복귀는 오키나와에 어떠한 개선도 일으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복귀 후 일본 본토 미군기지의 오키나와 이전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오키나와는 일본의 거대 자본 집단이 재물을 긁어모으는 기지로 전략하였다. 그 결과 오키나와는 정치적 주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주권에서도 역시 자결의 조건을 획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민중은 결코 독립의 의지를 상실하지 않았다. 1952년 일본에서 분리된 후 오키나와의 독립 의지는 미국 군정부에 대한 저항 투쟁 속에서 자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서 표현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초 시작된 일본복귀운동 역시 자치권 쟁취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 복귀를 주장하는 일부 사회 운동가의 입장에서 일본 복귀는 그저 오키나와 사회가 미국 점령 상태에서 더욱 많은 자치 권리를 확보하려는 책략에 불과했다.<sup>6)</sup> 오키나와 사회는 1952년 미국의 신탁통치, 1972년 시정권의 일본 반환이라는 극히 상반되는 두 단계를 차례로 거쳤기 때문에, 이 두 시기 출현한 복귀와 복귀반대 운동의 지향점 및 내용 역시 상이하다. 만약 이전 시기의 일본복귀운동이 아직 민주

6) 鳥山淳, 『沖繩／基地社會の起源と相克: 1945-1956』(東京: 勁草書房, 2013), pp.138-147.

주의 일본과 평화 헌법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시기에는 그러한 기대가 거의 사라졌다. 오키나와 여론은 ‘핵보유 반환(核付  
き返還)’과 ‘비핵화 반환(核抜き返還)’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었고, 그  
것은 오키나와 민중이 일본에 대한 원망을 분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일본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오키나와 사회에서 발생한 분열은 단순  
히 복귀와 복귀 반대 사이의 대립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 외부인의 입  
장에서 보기에 단순하고 쉬운 대립 구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키나  
와 사회 운동의 거대한 소용돌이의 수면 위로 떠오른 빙산의 일각에 지  
나지 않는다. 만약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분열과 갈등 내  
지 대립이 그저 복귀와 복귀 반대의 대립을 놓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이러한 대립 자체가 분열 속에서 이미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  
렸음을 발견할 것이다. 차라리 진정한 분열은 “일본과 어떻게 함께 지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 관찰 시각을 국가 차원에서 민중 차원으로 조정한다면,  
정치적 귀속문제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즉  
민중이 귀속을 선택하는 전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회 보장을 얻을 수  
있는지, 수요에 부합하는 더욱 많은 생계 수단이 있을 수 있는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미군 기지의 오키나와 주둔이 장기화  
됨에 따라 고도로 왜곡된 기지경제 형태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  
지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다. 끝없이 발생하는  
성범죄와 각종 형사사건, 미군기지 훈련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이 그 예이다. 그런데 오키나와가 다시 일본의 한 현이 된 후 이러한 문  
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대  
해 정부가 응당 지녀야 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후텐마(普天  
間) 군용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오키나와 민중은 결연하게 반대의 입  
장을 고수해왔지만, 민주당이 짧은 집권 시기 동안 미약한 이해 자세를 내

보인 것을 제외하고, 자민당 집권 하의 정부는 일관되게 미국에 고도로 협조하는 방침을 채택했으며, 각종 형식을 통해 완고하게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을 추진했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오키나와인이 귀속되기를 희망하는 곳이 아니다. 양자는 모두 오키나와 사회에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인들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독립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설사 현실적으로 독립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코소보전쟁과 같은 유형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은 단 한 번 본토에서 전쟁을 경험했다. 바로 미국의 오키나와 상륙 전투로, 오키나와인은 그 누구보다도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아름다운 군도 오키나와에서 전쟁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슈리성(首里城)은 산언덕마저도 모두 깔여 평평해져버릴 정도로 온통 폐허가 되었다. 후텐마의 경우, 오키나와 백성의 마음을 기탁한 신사 앞 아름다운 쇼인대도(松蔭大道)는 무참하게 훼손되어 버렸고, 미군은 상륙 후 그 위에서 곧바로 기지 건설에 착수하였다. 만약 독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시 한 번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절대 다수의 오키나와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경험으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오키나와 사회에서 부상한 자주 자결 의식은 현실적인 귀속 문제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주체성의 관점에서 진정한 독립 정신을 확립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점에서 ‘오키나와 독립’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독립과 자결이라는 표현 방식은 오키나와 사회의 고난과 고통의 심정을 기탁한 것으로, 절대 그 문자의 표현만큼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치적 분리주의가 흥기하고 있으나, 오키나와 사회의 민족 자결 의식은 결코 간단

하게 일반적 의미의 분리주의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키나와의 사상가들은 고난의 역사와 불평등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통용되는 민족 독립 이데올로기에 발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지난한 선택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대안적인 사상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바로 가와미즈 「헌법」은 오키나와 사상 자원의 깊이를 보여준다.

## II. 사상텍스트로서의 가와미즈 「헌법」

「헌법」의 머리말 부분은 긴박한 리듬감의 대구법을 사용한 문장이 한 호흡에 이어지며 인류의 흥망성쇠에 대한 논설을 이끌어낸다.

우라소에(浦添)로서 교만한 자는 우라소에에 의해 멸망하며, 슈리(首里)로서 교만한 자는 슈리에 의해 멸망한다. 피라미드로서 교만한 자는 피라미드에 의해 멸망하며, 만리장성으로서 교만한 자는 만리장성에 의해 멸망한다. 군비(軍備)로서 교만한 자는 군비에 의해 멸망하며, 법으로서 교만한 자는 법에 의해 멸망한다. 신에 의존한 자는 신에 의해 멸망하고, 인간에 의존한 자는 인간에 의해 멸망하며, 사랑에 의존한 자는 사랑에 의해 멸망한다.

과학으로서 교만한 자는 과학에 의해 멸망하며, 음식으로서 교만한 자는 음식에 의해 멸망한다. 국가를 도모하면 국가의 감옥에 살게 된다. 집중화·거대화된 국가 권력 아래 착취와 억압, 살육과 불평등, 빈곤과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전쟁을 피한다. 석양빛 아래 이미 모래 먼지가 되어버린 서역의 고도(古都)를, 혹은 놀란 새가 일별(一瞥)을 고하는 잉카 제국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 무엇하러 저 지나가버린 문명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바로 지금 초토(焦土) 위에 서 있는데.

(중략)

호전국 일본이여, 호전적인 일본 국민과 권력자여, 그대들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시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류를 멸망으로 모는 동반자살의 길을 함께 할 수 없다.<sup>7)</sup>

우라소에(浦添)는 12~14세기 고류큐(古琉球) 시대 세 개 왕조의 고도였고, 슈리(首里)는 그 이후 류큐 왕국의 고도였다. 이처럼 가와미츠는 류큐의 역대 왕조 교체의 역사를 논하는 것부터 시작해, 인류가 그 어떠한 가치에 교만해지면 그로 인해 멸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인류사회의 딜레마를 예리하게 지적한다.

나는 작년 오키나와에서 가와미츠 선생을 만났을 때 그의 「헌법」을 중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답하길, 「헌법」의 머리말이 너무 어려워서 수정을 하겠으니 좀 더 기다렸다가 번역을 기획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생각을 접었다. 왜냐하면 이 글이 세상에 발표된 지 이미 많은 해가 흘렀기에 지금 다시 고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원형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 작은 일화는 매우 흥미로운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바로 가와미츠 「헌법」의 창작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로서, 특히 그 머리말이 특정한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첫 몇 단락의 서두는 전체 텍스트에서 특정한 기능을 맡으며 본문과 유기체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 본인일지라도 30여 년 후 다시 그 안에 개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7) 川滿信一, 「琉球共和社會憲法C私(試)案」, 川滿信一, 『沖繩發: 復歸運動から40年』(東京: 世界書院, 2010), pp.104~106 참고.  
(옮긴이 주) 인용문은 중국어 글을 중심으로 번역하되 일본어 원문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원문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  
(<http://www7b.biglobe.ne.jp/~whoyou/bunkenshiryo.htm#kawamitsushinichi>) (검색일: 2014.11.13)



「헌법」 머리말의 어려움은 아마 그 ‘교만하다(驕る)’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단어는 인류의 뿌리 깊은 저열한 근성을 응집하고 있다. 바로 타인에게는 없지만 자신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조건에 대해 교만하게 굴며, 타인을 높은 곳에서 굽어보고 무시하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이 같은 병폐는 그저 인격 수양의 문제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습성으로 구현된다면 치명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우월감은 한 단계 나아갔을 때 차별과 배척으로 변할 수 있다. 우월감은 본래 그 자체로 반드시 차별과 배척의 태도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그 기초가 된다. 그리고 한 사회에 차별과 배척의 풍조가 만연할 때, 이 사회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가와미츠가 서두에서 언급한 네 가지 “교만함”의 대상 가운데 서구의 강세 사회 및 문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가 선택한 류큐의 역사, 그리고 인류 4대 문명 가운데 근대 시기 열강에 의해 유린당한 제3세계의 두 문명은, 공통되게 자신의 문명에 교만한 상태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가와미츠는 보통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의 역사적 운명을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 즉 바로 이어서 그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 ‘군비’와 ‘법’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수차례 질의의 대상이 된 범주와 네 개의 실패한 문명의 부호가 나란히 놓이면서 글의 흐름은 갑자기 역전된다. 상식으로 보기에 한때 잘나갔던 ‘약자’와 오늘날 모든 정치체 내에서 강세의 위치에 있는 국가 수단은 이 동일한 문장 구조를 통해 갑자기 최대 공약수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가와미츠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한 문명의 쇠퇴가 단순히 외부의 적이 침입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은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착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나 중국과 같은 거대한 문명이든 우라소에나 슈리와 같은 작은 문명이든 간에 관계없이, 자신만을 믿고 교만하게 군다면 쇠락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뒷부분이다. 가와미츠는 아무런 중간항 없이 갑자기 문장 구조를 바꾸는데, ‘교만하다(驕る)’라는 단어 대신 ‘의존하는(よった)’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 결과 글의 흐름에 다시 한 번의 역전이 발생한다. 그는 신, 인간, 사랑의 세 가지 대상에 의존하면, 역시 의존하는 자가 그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이 작품의 특수한 맥락에서 벗어나 이해한다면 가와미츠가 일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자라고 상상하기 쉬울 것이다. 추측컨대 이 때문에 바로 그가 애당초 머리말을 수정하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돌아가 그 역사와 함께 가와미츠가 끝내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이해한다면, 이상의 난해한 인용문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와미츠가 이 ‘헌법’을 창작한 시기는 바로 오키나와와 일본이 모두 극도의 혼란에 처했던 때였다. 일본 복귀 이후의 상황은 오키나와 민중들의 격렬한 불만을 야기했으며, 오키나와 사회의 사상엘리트들은 유례없이 험난한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였다.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사토-닉슨 회담을 전후하여<sup>8)</sup> 오키나와 자치의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결국 오키나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에 복귀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sup>9)</sup> 오키

8) (오키나와 주) 1969년 11월 19-21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닉슨 회담의 미일 공동성명을 말한다.

9) 예를 들어 당시 가장 치열했던 논쟁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이후,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 장비를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 본토와 동일한 수준에서 미일안보조약 및 지위협정의 조건을 향유함으로써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에서 철수시킬 것인가였다. 당시 오키나와 사회 내부에는 심지어 극단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바로 본토의 일본인이 원자폭탄으로 격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일본이 비핵국가라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줄곧 오키나와를 불공평하게 대우했던 일본에 대한 일종의 복수라는 것이다.

나와 자치의 요구가 일본 복귀로 대체된 후, 오키나와인이 어떻게 자신의 주체적 의지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상황 속에서 굴절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또 다시 배반당한 오키나와 사회는 어떻게 일본의 다른 현과 평등한 권리를 쟁취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실적인 과제로 삼았다.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계에서는 미군기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미군기지 축출 여부가 문제의 관건이 되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오키나와의 자치 요구 운동은 멈춘 적이 없지만, 미군기지의 존재 및 강화로 인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다. 오키나와 사회는 미군기지가 끝없이 야기하는 재난에 직면하여 일본을 선택했고, 또한 한동안 일본에 기대를 품었다. 즉 미군기지에 대한 저항에서 일본 정부가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였다.

1981년, 때마침 오키나와 시정권 일본 반환 협정 체결 10주년인 해, 오키나와 지식계에 가와미즈 「헌법」을 포함한 세 편의 ‘헌법’이 출현했다. 세 편의 헌법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특히 가와미즈 「헌법」과 다른 두 편의 헌법(헌장)은 지향점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세 헌법은 모두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자치가 불가능한 상황을 비판하며 자치에 대해 사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세 편의 헌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내려진 지난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헌법들의 탄생은 1980년대 초 오키나와 사회 특유의 시대적 분위기, 즉 자치의 길에 대한 모색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을 반영한다.

가와미즈 「헌법」의 탄생은 비록 오키나와 사회의 자치 요구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의 자치 분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머리말 부분에서 이 같은 거리감이 집중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즉 그것은 현실의 미·일 양국의 강권 정치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서의 오키나와 사회 자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머리말에서 신과 인간, 사랑에 의존하는 방식에 제기한 부정의 명제는 문제를 극한으로까지 첨예하게 밀고 나간다. 신에게 의존하여 구원을 꾀한다면 신에게 배반당할 것이고,<sup>10)</sup> 인위의 주체에 의존한다면 자연을 경시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사랑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인해 위협 받아 원한으로 바뀔 것이다.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논술들은 이렇게 사상의 함정을 드러내었다. 바로 것처럼 귀중해 보이는 가치가 인류 사회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재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가와미츠는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깊이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약자가 재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 강자의 패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약자 자신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패권에 반대할 것인가? 다시 말해 약자가 의존하고 있는 사상의 무기는 만약 비판을 거치지 않으면 강자와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와미츠는 여기서 나아가 “자유라는 명분의 자발적 예속”<sup>11)</sup>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교만함이라는 일상적인 사

<sup>10)</sup> 나는 가와미츠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상징하는 신도(神道)를 특정해서 가리킨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1970년 일본 복귀의 풍조 속에서 당시 사회의 사조를 주도하던 오키나와 엘리트 중에는 여전히 신도를 독실하게 믿으며 일본 천황에 대한 경애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었다.

<sup>11)</sup> 2013년 12월, 가와미츠는 도쿄외국어대학에서 개최한 『자발적 예속을 타파하기(自發的隸從を撃つ)』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 “자발적 예속”이라는 표현 방식은 프랑스 사상가 에티엔 드 라 보에티(Étienne de La Boétie, 1530~1563)의 저서 『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자발적 예속을 배격한다)』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와미츠가 계속해서 주목해오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식을 핵심으로 하여 가와미츠 「헌법」을 이해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옮긴이 주) Étienne de La Boétie, *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 (Paris: Éditions Mille et une nuits, 1997). 영문판은 *The Politics of Obedience: The Discourse*

회 분위기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사회 상황을 연결하여, 어떠한 문명도 약소함이 아닌 교만함 때문에 멸망한다는 통찰력 깊은 분석을 내놓는다. 이처럼 비판 정신으로 충만한 머리말과 대조적으로 「헌법」의 본문은 가와미츠가 “자발적 예속”이라 지적한 현대의 사회 형태에 대해 이상적인 사회 구조 방식을 제기하였다. 이 헌법의 머리말은 본문과 더불어 긴장감을 지닌 구조를 형성하였고, 그것은 국가의 존재 방식이 아닌 인류의 생존 방식에 대해 유기적인 질문을 만들어냈다.

가와미츠 「헌법」은 사상사 연구에 매우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한다. 분명 이 「헌법」은 현실에 직접적인 투쟁 전략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만약 그것을 리얼리즘의 텍스트로 삼아 읽는다면 머리말이 제시한 비판들을 현실에 그대로 대입할 것이고, 그 결과 머리말이 오키나와 독립을 주장한 것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그것을 유토피아의 텍스트로서 읽는다면 본문이 실제에 부합하지 않고 현실감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비난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비판은 「헌법」의 발표 이래 줄곧 존재하였다. 가와미츠 본인 역시 탄식하기를, 자신은 중국 고대의 시인처럼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창작할 수 없으며, 그의 작품은 모두 끓는 기름 솥 속에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가와미츠 「헌법」에 대한 이상의 두 비판은 오키나와의 가혹한 현실 상황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문제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오키나와 사회가 여전히 미군기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우경화가 더욱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오키나와와 일본의 양식 있는 인사들이 다시 한 번 「헌법」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의 기능이 오키나와 독립 실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

*of Voluntary Servitude*, translated by Harry Kurz and with an introduction by Murray Rothbard, (Montréal/New York/London: Black Rose Books, 1997) 참고.

다.<sup>12)</sup>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점에서 가와미츠 「헌법」은 마침내 사상텍스트로서 토론과 공유의 계기를 얻은 것이 아닐까?

### Ⅲ. 오키나와 ‘공동체 생리’의 영혼

하나의 사상텍스트로서 가와미츠 「헌법」은 결코 헌법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헌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으로, 현실 정치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수렴될 수 없는 사상적 기능을 맡고 있다.

「헌법」은 그 표제에서부터 국가를 부정한다. 그것은 사회의 총체적 의지의 구현이지 국가의 통치 도구가 아니다. 머리말의 서두에 나온바 우라소에와 슈리가 교만함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논설에서 알 수 있듯이, 가와미츠는 단지 강대국만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약소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부정하며, 약소국이 강권에 저항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을 강화하는 논리를 부정한다. 그러나 반국가가가 이 「헌법」의 진정한 주제가 아니며, 가와미츠를 무정부주의자로 보는 것 역시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는 어떠한 형식의 폭력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폭력에 대한 반대도 포함된다. 이 점에서 가와미츠의 ‘류큐공화사회’는 ‘류큐공화국’의 대립물이라기보다는 각종 명분하의 폭력적 지배와 자발적 예속의 대립물이다. 만약 굳이 어떠한 ‘주의’로 이 「헌법」을 자리 매겨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평화

<sup>12)</sup> 만약 오키나와 독립 실현 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두 편의 헌법 및 헌장과 비교해 가와미츠 「헌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독립론에 가장 불리한 것이다. 그것의 반국가적 성격과 철저한 반폭력의 특징은 현실 속의 독립파에게 사상적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

주의의 걸작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평화주의의 시각에서 출발해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도 여전히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면하기 어렵다. 평화주의의 이념은 분명 이 작품의 반폭력 기조를 구성하지만, 작품의 정수를 드러내 보이지는 못한다. 그것은 평화주의의 핵심적인 문제, 즉 평화와 폭력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주목하는 것은 평화를 구성하는 기초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외부의 강권적 폭력에 대한 저항 방식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절대적 평화주의와 상대적 평화주의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폭력, 특히 군사적 침입에 대한 대응 문제 또한 거의 논하지 않았으며, 유사한 사항이 관련되면 그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갈 뿐이다(제13~15조). 「헌법」에서 대량의 규정이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권력의 맹아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탐욕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와미츠는 기본이념 부분에서 자연계를 포함한 만물에 대한 자비의 원리에 의존하여 호혜호조(互惠互助)의 사회 제도를 창조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이는 과학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세계, 인류를 중심으로 한 현대화된 소비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이와 같은 기본이념에 호응하여 제4조, 6조, 35조, 36조, 50조, 51조, 52조, 53조 등은 각각의 방면에서 소비와 생산이 인간의 기본 생존 수요를 초과하거나 자연계의 평형을 파괴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되며, 인간과 자연이 신중하게 공존하는 사회 상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여기에 상응하여 제6조, 7조, 18조, 19조, 22조 등의 항목은 차별을 근절하고 상호 원조하는 방식을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부를 핵심으로 하는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관철하는지, 그리고 각종 형식의 강제를 폐지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였다. 「헌법」은 또한 사회생활의 여러 방면에도 주의를 기울여, 사유권 폐지에서부터 노동 분업 및 교육과 개인 자질

의 상호 부합에 대해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와미츠는 이상의 소박하면서도 근본적인 성격을 지닌 일련의 규정들을 기초로 하여 류큐공화국 및 사회의 조직 형태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가 기구가 없는 사회이다. 그것은 구성원이 유동적인 대표제 중의(衆議) 기구를 지니며, 산하에 연락 및 조정기구를 갖고 있다. 전문가 위원회와 집행 위원회로 구성된 연락 및 조정기구는 중의 기구에 대해 상이한 자치체 간의 협조와 자치체 내부 각 항목의 대비책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으며, 또한 승인 후의 집행을 책임진다. 공직은 일률적으로 교체제를 실행한다. 대표제 중의 기구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치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결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좁은 의미의 정치학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가와미츠 「헌법」은 정치를 소거한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헌법은 조화가 불가능한 사회 충동을 거부하고, 인류의 욕망이 초래한 탐욕과 박탈 및 투쟁을 거부한다.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자비의 원리’는 현행 정치 세계의 기본 논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가와미츠 「헌법」이 유토피아적이라고 여겨지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다. 동시에 이 작품은 류큐사회 촌락의 관습법 색채가 가득하여, 국가 법률기구가 설립한 성문법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가와미츠 자신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 그의 「헌법」은 결코 헌법 이념을 연구 및 고찰하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 자신의 소년기 촌락 공동체 생활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가와미츠 「헌법」은 류큐의 전통 생활 속에서 형성된 관습법이 다시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모색한 작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71년 발표된 오키나와 사상가 오카모토 케이토쿠(岡本惠徳)의 명저 『수평축(水平軸)의 사상—오키나와의 공동체의식에 대하여』<sup>13)</sup>는 가와미츠 「헌법」과 가장 좋은 호응을 이루고 있다.<sup>14)</sup>



오카모토의 논문은 다방면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역시 오키나와 민중의 '관습법'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가와미즈와 상통하여, 역시 현대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한다. 오카모토는 오키나와 사회의 무의식화된 '근대 콤플렉스'를 자세히 설명하며, 그것이 바로 오키나와의 일본복귀운동의 기반을 이루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는 오키나와학을 개창한 이하 후유(伊波普猷)<sup>15)</sup>에서부터 시작해, 일본에 대한 동일시와 현대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오키나와의 잠재적인 '낙후' 콤플렉스가 결합해 존재함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이하는 비록 오키나와가 본토와는 다른 문화 풍토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류큐와 일본을 동일시하여 지체 없이 '근대'<sup>16)</sup>를 추구할 목표로 삼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았다. 이처럼 본토의 차별 정책에 저항하면서도 현대화라는 목표는 의문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상에 일종의 오류가 생겨났다. 바로 오키나와인이 본토의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비하가 생겨난다는 인식이다.

13) 谷川健一 編, 『沖繩の思想』叢書わが沖繩 第6巻, (東京: 木耳社, 1970.11) 참고. 중국어 번역은 雷啓立 執行主編, 『熱風學術』第四輯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0) 참고. 『沖繩の思想』에는 이 밖에도 가와미즈의 논문 “沖繩における天皇制思想”이 수록되어 있다.

14) (웁긴이 주) 오카모토에 대한 쏘거의 분석은 또한 쏘거, 「민중시각과 민중연대」, 『창작과 비평』 제39호 (2011)를 참고.

15) (웁긴이 주) 이하 후유(伊波普猷, 1876~1947)는 오키나와 나하(那覇)시 출신의 민속학자이자 언어학자이며 오키나와학의 대부로 불린다. 동경제국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후 오키나와에 돌아와 오키나와 현립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오키나와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저서로 『沖繩考』(東京: 創元社, 1942), 『琉球古今記』(東京: 刀江書院, 1940), 『古琉球の政治』(東京: 郷土研究社, 1922)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전성곤이 옮긴 『고류큐의 정치』(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0)가 소개되어 있다.

16) 일본어에서 '近代'는 현대화(現代化)와 현대성(現代性)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자기비하에 대한 이 같은 해석 방식은 오키나와의 대표적 시인 야마노구치 바쿠(山之口夔)<sup>17)</sup>의 대표작인 『회화(會話)』에 대한 오독을 초래한다. 즉 그것이 본토의 차별의식, 그리고 오키나와인의 자기비하 표현과 저항이라고 이해하는 식의 오독이다. 오카모토는 자기비하와 반차별 태도가 지닌 의미를 세밀하게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모두 저항의 대상을 그 자신의 전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그가 느끼는 것은 자신이 본래 응당 받았어야 할 물질적·정신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자신을 차별하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느끼는 바에서 기인한다. 즉 이러한 생각은 상대방의 가치관에 대한 고도의 동일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키나와 복귀 문제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관련된 논쟁, 그리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차별적 구조가 오키나와인의 자기비하를 야기했다”는 인지구조가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일본의 현대화 모델에 대한 동일시이다.

오카모토의 이 같은 분석은 상당히 방대한 사상적 시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그의 정확한 지적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 및 자기비하를 반대하는 시각 속에는 현대화 이데올로기의 생산자와 추동자인 일본 국가가 절대화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현대화라는 이념(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개인의 주체성과 이성 관념이다)을 동경할 때 오키나와 사회에 생기는 가장 큰 환상은 그러한 이념이 국가 의지를 매개로 함을 가변이 여기는 것인데, 그 결과 어떠한 매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 이념에 접근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오키나와 ‘근대’의 특징일 뿐

17) (옮긴이 주) 야마노구치 바쿠(山之口夔, 1903~1963)는 오키나와 출신의 시인으로 본명은 야마구치 유사부로(山口重三郎)이다. 197편의 시를 창작하였고, 시집 『思辨の苑』(1938), 『山之口夔詩集』(1940), 『定本山之口夔詩集』(1958), 『鮪に鯛』(1964)을 발표하였다.

만 아니라 또한 오키나와의 일본복귀 사회운동이 지닌 맹점이기도 하다.

둘째, 오키나와 사회의 혈연공동체식(式) ‘전근대’적 생활 방식을, 도쿄로 대표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현대화된 생활 방식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대’에 대한 상상에서 벗어난다는 전제하에 오키나와의 ‘자립’이 대체 어떠한 내용인지를 새롭게 질문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키나와는 신중한 태도로 지난한 사상과제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오키나와 사회는 이미 일본에 거의 동질화된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 정도 역시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추동하는 동질화와 차별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줄곧 본토와 오키나와의 비판적 지식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가 보기에 이러한 비판은 비록 가치는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그는 날카롭게 질문한다. 편견과 기성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만, 이러한 논술에 의지해 ‘오키나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되는 시점에서 오키나와 케이트쿠가 묻는 것은, ‘복귀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복귀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키나와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선택도 진정한 자립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오키나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상의 곤경을 용감하게 직시한다. 그 곤경이란 바로 오키나와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할수록 적합한 언어는 더욱 찾을 수 없게 되고, 분명하게 말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키나와는 그 노력들 속에서 실체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언어는 모두 왜곡되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았기에 한층 더 왜곡되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야마노구치의 『회화』를 읽는다. 시의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가 어디 사람이냐고 묻자, 그녀에게

오키나와의 이미지에 관해서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남쪽의 섬나라라고 대답할 뿐 끝내 ‘오키나와’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이 같은 예술적 표현이 자기비하 혹은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과 다르게 오카모토는 그것을 오키나와인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표현의 고통, 즉 적합한 자기표현을 찾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해석한다. 이미 지나치게 널리 사용되어 굳어진 ‘오키나와’라는 단어의 사용을 회피하면 물론 수많은 기존 관념 내지 입장까지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카모토는 글의 말미에서 일본 본토에서 일하는 오키나와 여자아이의 예를 인용한다. 그녀는 ‘오키나와인’을 망신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심지어 공장주의 노동기본법 기준을 초과한 착취까지 견뎌낸다. 오카모토는 그녀의 의식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저 무력감을 느낄 뿐이라며 탄식한다. 왜냐하면 그로서는 그녀가 납득할 만한 해석의 논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평축의 사상』은 바로 이 ‘오키나와 논리’의 해석을 모색한 걸작이다. 오카모토는 가와미즈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 정부가 서로 결탁하면서도 동시에 다투는 실태를 비판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또한 오키나와를 일본과 미국이 펼친 차별 정책의 희생물로 보는 데 만족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투쟁을 오키나와 원리의 기본 논리로 삼는 데 그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너무나 충분치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 다른 사상의 진입로를 찾아 다른 사고의 공간을 개척할 필요가 있었다.

오카모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오키나와의 혈연공동체가 형성한 질서감각은 비록 류큐의 강제 합병 이후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교묘하게 이용당하였고 심지어 전시와 전후 복귀운동 속에서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덮여버렸지만, 그러한 질서감각 자체는 결코 국

가 이데올로기와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비록 역사의 특정 단계에서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나 ‘애국주의’와 일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질서는 결코 ‘공동체의 생리’를 대체할 수 없다.

오카모토는 ‘공동체의 생리’라는 생물학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내재적 규범, 사상, 이성 등의 범주와 구별되는 공동체의 생존의 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의미 전체는 바로 공동체 생존의 지속을 가리킨다. 하나의 살아 있는 ‘생명체’인 공동체의 생리는 예를 들어 ‘신’과 같은 절대화된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공동체 내부에서 모든 개체는 다른 개체와의 거리를 근거로 자신의 유동적인 도덕 및 질서의 기준을 규정한다. 이것은 일종의 수평축 위의 질서감각으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미치는 외재적인 강제 규범과 달리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 질서의 구조를 설정한다.

오카모토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은 오직 개인과 개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국가(조국)’, ‘이민족’과 같은 개념은 일상 생활 속의 현실적인 존재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생리와 연결될 때, 또한 공동체의 존망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발휘할 때만 일정 정도 작용할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메이지 이후 일본은 오키나와를 통치할 때 국가의지를 민중 생활의 심층에까지 완전히 침투시킬 수 없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의 일본복귀운동이 출현하였을 때 많은 내부의 논쟁이 야기된 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것처럼 소외 상태를 벗어나 자아의 복귀를 시도하는 운동이 공동체 생리의 기본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한 ‘조국’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민족 통치’가 초래한 현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대립면으로서 ‘조국’을 이상화했던 것일 뿐이다.

오카모토는 공동체의 ‘수평축’ 질서감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민중의 시각과 지식 엘리트의 시각 사이에 존재하는 방향의 차이를 구별한

다. 그는 오키나와 전쟁 말기 도카시키(渡嘉敷) 섬 주민이 강제로 '집단지살'을 해야 했던 잔혹한 사건을 예로 들어, 이 사건에 대한 민중적 시각의 감각방식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카시키 섬의 집단자살 과정에서 민중이 구현해 낸 공동체의 의지는 불가항력의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차피 함께 살 수 없다면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방식으로 환상 세계의 '공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은 분명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현대 이성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오카모토가 보기에 공동체의 생리는 결코 도카시키 섬의 비극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비극의 원인은 바로 전쟁을 불가항력적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분위기, 고립무원의 자연 조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에게 강제되던 일본군의 권력 의지를 거역할 방법이 없다고 보았던 판단이다.

오카모토가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만도, 공동체의 생리를 '낙후한 혈연관계'의 범주에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복잡한 사상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전후 시기 발생하여 1970년대까지 이어졌던 대중적 일본복귀운동이 단순히 '본토 지향적'이 아니라, 동생공사(同生共死)의 공동체 생리를 기초로 하였다는 것이다. 오카모토가 제기하는 문제는 만약 이러한 복귀운동이 의지하고 있는바, 이민족 통치에 대한 저항과 생활속 위기감의 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체 생리 기제를 동원하였다고 한다면, 복귀 이후 이러한 동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래의 사회 조직 기제를 대체한 것은 '진보'에 대한 갈망이었는데, 이것이 거꾸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동질화를 촉진하였다. 이와 관련해 계급의 시각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오카모토는 이러한 올바른(正しい) 원리가 과거와 현재 일본 국가가 교묘하게 공동체 생리를 이용해 통치하는 현실에 대해 저항하는 효과적인 사상적 도구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오카모토는 좀 더 도전적인 질문까지 던진다. 생존 감각을 기초로 한 오키나와 민중의 ‘공동체 의지’는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용당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전환 가능성을 지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 ‘오키나와의 사상’이 존재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논리화된 체계로 확립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결코 오키나와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떠한 사회의 대중 사상을 논할 때라도 모두 이와 같은 곤경이 발생한다. ‘근대’에 대한 환상을 폭로하고 타파하는 것, 민중에 대한 지식 엘리트의 체계화되고 이론화된 논술을 거절하고 민중의 생활 논리 그 자체에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 이는 기존의 국가론과 반국가론을 전복하는 출발점이다. 오키나와는 그 고유의 가혹한 상황에서 가와미츠 신이치, 오카모토 케이토쿠와 같은 사상을 지닌 인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비애를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오키나와가 일본과 미국의 거래 조건으로 전략한 불리한 처지를 역전시켜, 국가와 ‘근대’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유사상을 창조해냈다.

1970년대 초 오카모토와 함께 같은 논문집에 「오키나와 내부의 천황제 사상」<sup>18)</sup>을 발표하였던 가와미츠 신이치는 십여 년 후 당시 그와 오카모토가 공유했던 사상적 과제를 추진했다. 가와미츠 「헌법」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키나와 ‘공동체의 생리’라는 과제이다. 그는 ‘자비의 원리’를 이용해 당시 오카모토가 표현할 수 없어 괴로워하던 ‘오키나와’에 형상을 부여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오키나와 자립의 목표를 찾고자 하는데, 그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키나와인가’를 따져 묻는다. 오카모토가 말했던 것처럼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오키나와의 전후 세대는, 그들이 국가를 상대화함과 동시에 오키나와 자립 사상을 사고할 때, 그 사상적 기반이 완전히 오키

18) (윤진이 주) 각주 13 참고.

나와 전투(沖繩戰)<sup>19)</sup>의 체험 속에 존재한다. 가와미즈 「헌법」은 전쟁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권력욕과 폭력적 수단을 거부하고, 실컷 유린 당해왔던 오키나와 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한다. 그것은 외재적인 국가 폭력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사회 자신 역시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통치 계층의 권력뿐만 아니라 민중 공동체 생리의 핵심까지 가리킨다. 가와미즈와 오카모토, 그리고 반전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수없이 많은 오키나와인들은 피해자의 입장에 안주하지 않음으로써 비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 IV. 가와미즈 「헌법」이 인류 정신사에서 지니는 의미

평화와 전쟁, 우호와 폭력은 인류 정신사의 오래된 주제이다. 평화주의와 관련된 정치철학의 토론은 매우 많으며, 평화와 관계된 사회 운동도 일어났다 사그라지기를 반복해왔다. 비록 평화에 호소하는 것이 전쟁을 철저하게 소멸시킬 수는 없었지만, 인류 정신 속에 평화의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까지, 폭력과 평화에 대해 부여하는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국가와 전쟁,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 평화의 ‘인위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평화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져야 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칸트는 집권자의 신경을 건드리는 이 주제가 결코 쉽게 실현

19) (윤진이 주) 제2차 세계대전 말 1945년 3월 말부터 6월 23일까지 발생한 전투로,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영토 내에서 벌어진 전면전이였다. 이 전쟁으로 인해 오키나와 민간인 12만여 명이 사망하였다.



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구평화론」에 ‘철학적 기획’이라는 부제를 붙였고, 또한 서론에서 이론가의 공허한 관념은 국가에 어떠한 위해도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공허한 관념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20세기 인류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후, 전쟁은 이미 루소와 칸트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인류 최악의 재난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평화의 호소는 유례없는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세계연방정부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결코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럽 사상 중 세계 연합정부에 대한 이론적 구상(그 대표자가 바로 칸트이다)과 미국 연방주의자들의 실천을 기초로 삼고 2차대전 후 전지구적인 반전 정서에 힘입어, 국지적인 시도에서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행동으로 확대되었다.

세계연방정부 운동은 일련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 또한 미국의 운동가들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였기 때문에, 출현 후 곧바로 소련의 저지를 받았다. 사실상 냉전 구조의 형성을 막고자 하는 시도였던 이 운동은 결국 현실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냉전 구조에 의해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련의 원칙상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선진국 지식인과 사회 운동가들에게서 온 정치적 기획이 사실상 식민지 문제를 진정으로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이 근거를 두었던 원리는 대체로 구미의 국가 의지가 만들어 낸 인권 개념과 국제법 개념을 부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위 세계연방정부라는 것은 구미 연합정부의 확대 및 수정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으로 충만했던 이 운동이 역사에 새긴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1948년 세계연방정부 운동의 룩셈부르크 대회에서 세계헌법소위원회가 다수의 세계헌법초안을 포함한 보고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미국의 저명한 인문학자 11명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세계헌법 시카고초안」<sup>20)</sup>이다. 그것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구상에서 인류 공동의 목표는 정신을 발전시키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의에 기초하여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여러 나라 국민들의 정부는 주권을 하나의 정의로운 정부에 위임하고, 각자의 무기를 이 정부에 인도하여, 세계연방공화국의 맹약과 기본법을 확립해야 한다. 국민의 시대는 끝났다. 인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sup>21)</sup>

「세계헌법 시카고초안」은 단일한 국가의 초안이다. 그것은 전쟁을 부정하지만 국가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폭력을 부정하지만, 법률이 허락하는 폭력적 침해에 반대하는 폭력은 유지하였다. 그것은 개인과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종적, 민족적, 교리적, 그리고 문화적 정복을 부정하지만,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자연법을 세계 공화국의 성문법으로 삼을 것을 역설하였다. 그것은 인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네 가지 요소(토지, 물, 공기, 에너지 자원)를 인류 자산의 공공성으

<sup>20)</sup> (웁긴이 주) “Preliminary Draft of a World Constitution”은 이른바 시카고 초안으로 불리며, 1948년 3월에 발표된 세계헌법의 예비초안이다. 편찬 위원 11명은 다음과 같다. Robert M. Hutchins, G. A. Borgese, Mortimer J. Adler, Stringfellow Barr, Albert Guérard, Harold A. Innis, Erich Kahler, Wilber G. Katz, Charles H. McIlwain, Robert Redfield, Rexford G. Tugwell. 헌법의 원문은 다음을 참고. <<https://www.questia.com/read/505583/preliminary-draft-of-a-world-constitution>> (검색일, 2014.11.13)

<sup>21)</sup> (웁긴이 주) “Preliminary Draft of a World Constitution,” Preamble, p.3.

로서 강조하지만, 이 요소들이 어떻게 사실상 상이한 규모의 사유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식민지였던 후발국가들이 어떻게 주권을 획득하여 국제사회로 진입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결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민족 독립의 단계를 뛰어넘어 국민국가를 부정하고 곧바로 인류 시대로 진입하였다.

한 때 「세계헌법 시카고초안」의 기안 위원회에 참여하였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는 이 위원회를 도중에 사퇴하고, 헌법 초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 비판의 골자는 이 운동이 상이한 종족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간과하였고, 기존의 국가가 어느 정도 지연사회(地緣社會)의 문화 및 역사의 공통성에 기초해 형성되었음을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아직 사회적 공통성이 형성되지 않은 때 설립된 세계정부는 곧 인위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먼저 인위적인 힘에 의존하여 정부를 만들고, 다시 정부에 의존하여 사회를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 내부의 결합 능력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힘에 의존해 연방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질서를 위해 정의를 희생하거나, 정의를 위해 질서를 희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니버는 세계정부가 현실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화’라고 여겼으며, 이와 상대되는 ‘세계사회’라는 이념을 제시하였다.<sup>22)</sup>

세계연방정부의 이념은 확실히 핵심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 결함으로 인해 그것은 유토피아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

<sup>22)</sup> 谷川健一, “世界政府が それとも世界破滅か—世界連邦政府運動と世界憲法,” 『中央公論』(1949.10), 이상의 세계정부운동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이 글에서 인용함.

분 니버의 예측대로 강대국의 패권 확립을 미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세계헌법 시카고초안」 본래의 취지인 것은 아니며, 또한 발표 당시의 헌사를 보아 「초안」은 여전히 기념할 만한 문헌이다.

“만약 1948년 1월 30일(주: 간디가 암살당한 날이다) 이전에 세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간디가 당선되었을 것이다. 약소민족이 모인 대다수와 서구 백인에게서 온 상당수의 표가 간디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어, 다수의 국민이 추대한 또 다른 두 명의 강력한 후보 스탈린(Joseph Stalin)과 처칠(Winston Churchill)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의 세계’가 가졌었던 초대 대통령으로서 죽은 것이다.<sup>23)</sup>

간디와 스탈린 및 처칠 간의 대립은 1940년대 말 전쟁이 한 세대에 초래한 심각한 충격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 시기 오키나와는 마침 샌프란시스코 조약<sup>24)</sup> 체결 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는데, 세계연방정부의 이상은 오키나와의 현실 앞에 무력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30여 년 후, 세계는 수차례의 국지전을 겪었으며 주도적 위치를 점한 국가는 기존의 국면을 유지하고자 했고 불리한 위치에 처한 국가는 더욱 유리한 위치를 획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들은 모두 전쟁을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키나와의 사상가는 30여 년 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인류 시대’에 대한 외침을 내놓았다. 이것이 바로 가와미즈 「헌법」의 의의이다.

당시 니버가 ‘세계 사회’를 외쳤을 때 그는 이 ‘사회’의 의미가 무엇인

23) 谷川健一, 위의 논문, p.17.

24) (웁긴이 주)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48개의 연합국과 일본 간에 서명되어 다음 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일본과 연합국 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강화조약으로,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도 한다.

지 문제화되지 않았다. 세계 정부와 상대되는 ‘세계 사회’는 서구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사회’ 범주를 초월할 수 없었다. 오키나와 사상가의 ‘공동체의 생리’와 비교할 때 그것은 여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것이며, 게다가 최종적인 목표가 여전히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반면 가와미츠 「헌법」은 인류 정신사에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 나타났음을 상징한다. 국가와 국가 기구에 대한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부정 정신은 오키나와가 겪은 백여 년의 고난과 굴욕에서부터 기원하며, 또한 오키나와 민중 공동체의 생리를 근간으로 한 분투와 항쟁에서부터 기원한다.

분명 가와미츠 「헌법」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30여 년 전의 「세계연방 정부 시카고초안」보다 더욱 강렬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를 부정하고 폭력도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꾸로 가와미츠 「헌법」이 더욱 강한 현실 의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의 투쟁 현실이 이 작품의 이념에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여 운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헤노코 기지 이전 반대 운동이 철저히 비폭력 저항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선두로 한 수많은 평화 투쟁은 오키나와인이 폭력으로써 폭력에 저항하기를 피하는 것을 배웠음을 의미한다. 베트남 전쟁 중 미군 군사 행동을 견제하는 것을 통해 베트남을 지지했던 것을 선두로, 오키나와인은 전쟁 중 ‘국가 이익’을 넘어서는 인류주의의 정서를 배양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토양 위에서 가와미츠 「헌법」이 싹트고 자라날 수 있었고, 비로소 오키나와의 공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가와미츠 「헌법」이 일본에서 다시 한 번 기억되고 되새김질 때 우리는 다시 유사한 시련에 직면한다. 즉 오키나와의 선배 사상가들은 오키나와를 넘어서는 사상의 자산을 제공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계승해야 할까? 이 작품에 그 답이 있다. 진정한 자립은 강대한 외재적 요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우월감을 제거한 평등의 심리 상

태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저항은 악으로써 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 가치를 견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이다. 이것은 결코 절대적 평화주의의 박애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오키나와 민중이 수백 년 간 쌓아온 투쟁의 지혜이다. 가와미츠 「헌법」은 우리에게 말한다. 자립에 관한 또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으로 인류를 대하고 전쟁과 폭력을 처리하는 것은 비록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영원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바로 이 같은 진정한 자립정신이 인류 정신의 자질을 만들고, 사상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

■ 접수: 2014년 11월 17일 / 심사: 2014년 11월 26일 / 게재확정: 2014년 11월 26일

## 【참고문헌】

### 일본어 · 중국어 단행본 및 논문

谷川健一 編. 『沖繩の思想』 叢書わが沖繩 第6巻. 東京: 木耳社, 1970.

谷川健一. “世界政府が それとも世界破滅か—世界連邦政府運動と世界憲法.” 『中央公論』(1949.10).

雷啓立 執行主編. 『熱風學術』 第四輯.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0.

新崎盛暉. 『沖繩現代史』. 東京: 岩波書店, 2005.

鳥山淳. 『沖繩／基地社会の起源と相克: 1945~1956』. 東京: 勁草書房, 2013.

川満信一. 『沖繩發: 復歸運動から40年』. 東京: 世界書院, 2010.

### 구미 단행본

Étienne de La Boétie. *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 Paris: Éditions Mille et une nuits, 1997.

Étienne de La Boétie. Harry Kurz, trans. *The Politics of Obedience: The Discourse of Voluntary Servitude*. Montréal/New York/London: Black Rose Books, 1997.

### 인터넷 자료

川満信一. 「琉球共和社會憲法C私(試)案」; <<http://www7b.biglobe.ne.jp/~whoyou/bunkenshiryo.htm#kawamitsushinichi>>

“Preliminary Draft of a World Constitution” Robert M. Hutchins, G. A. Borgese, Mortimer J. Adler, Stringfellow Barr, Albert Guérard, Harold A. Innis, Erich Kahler, Wilber G. Katz, Charles H. McIlwain, Robert Redfield, Rexford G. Tugwell; <<https://www.questia.com/read/505583/preliminary-draft-of-a-world-constitution>>

## Realism and Utopia: Reading ‘The Unoffici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Ryukyuan Society’

Sun, G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ASS)

### Abstract

An Okinawan poet, Kawamichi Shinichi's, 'The Unoffici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Ryukyuan Society'(1981) is full of Utopian imagination, and also includes awareness of reality, and historical contents. Kawamichi's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Okinawan society grown up through a series of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annexation of Ruykyus" in 1879, the trusteeship of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ion of the Ryukyu Islands in 1953, and the reversion of trustee power with fu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uthority to Japan in 1972. Moreover, the Constitution provides alternative sources of thought, and seeks for self-reliance, different from the prevalent segregationism over national liberty. It is also against any form of violence, and denies the state. Finally, it proposes "The Republic of the Ryukyuan Society" as a counterpart to violent domination and voluntary subordination under any cause.

An Okinawan thinker, Okamoto Keitoku's 『Thought of a Horizontal Axis: Sense of Okinawan Community』(1971) is a text well corresponding to Kawamichi's 『The Constitution』. Okamoto oversets both conception of the



state and the anti-state, denies intelligent elitism over people, and finally approaches the logic of people's lives through conception of "community physiology". Once reading it along with the Okamoto's book, it Kawamichi's 「The Constitution」 provides an answer over a question, what Okinawa is, on which Okamoto endeavors. In consequence, both Kawamichi and Okamoto do not place Okinawa at the place of a victim, and provide Okinawan thought as the alternative way of thinking self-reliance.

Keywords: Okinawa, Kawamichi Shinichi, Okamoto Keitoku, Okinawan self-reliance, the Republic of the Ryukyuan Soceity, and community physiology

**쑤거(孫歌. Sun, Ge)** .....

일본 도쿄도립대학 법학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국현대문학, 일본근대사상사, 비교문화를 전공하고 있다.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연구원이다. 국내에 번역된 주요 저작으로는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원제: 竹内好という問い)』(그린비), 『아시아라는 사유공간(원제: 亞洲意味着什麼)』(창비) 등이 있다.

**역자: 송가배(Song, Ga-Bae)**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서 중국 현대(現當代)문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한·중 비교문학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석사논문은 "韓少功 소설 「爺爺」의 해석적 긴장에 관한 연구"이다.